

정보화사회의 先決要件

盧 伸 鎬

(쌍용컴퓨터 전무이사)



머리말

질이 좋은 물감과 화선지를 생산해 내고 많은 양을 수 출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미술이 발달된 나라로 평가받 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다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초 도구를 제공해 주고 있을 뿐이듯이 세계에서 3번째로 4메가 D램 반도체를 개발하고 전산망이 구축됐다고 해 서 그것만으로 정보 선진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사회는 사회학적으로는 인간이 잃었던 개성과 시 간을 되찾아 사람다운 삶을 영위케하고,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면서도 상대방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 으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를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는 사회를 말하며, 경제학적으로는 정보의 가치가 재화의 가치보다 우선하 는 情報資本主義 시대를 의미한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의 나라들이 국력신장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情報立國 論도 情報資本主義論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터(Motor) 그 자체보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는 데서 공업화가 가능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뒷받침 해 주듯 정보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도 컴퓨터 그 자체보 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즉,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와 컴퓨터 문명이 서로 마찰과 충돌 을 일으키지 않고 슬기롭게 접합될 때 정보화사회는 건 설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수첩이나 노트 등에 정보를 기록 하는 식의 필기 문화로는 자본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를 생성할 수가 없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산발적으로 발산되어 이용되고 소멸되는 정보를 「정보력」으로 생성하려면 컴퓨터와 통신시스템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야 한다. 이 상태를 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

필 자

- ▲ 美 國 방 경 영 과 학 원 시스템과학 전공
- ▲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초대회장
- ▲ 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
- ▲ 경제기획원 통계전문위원
- ▲ 시스템 컨설턴트(현)
- ▲ 총무처 정책자문위원(현)
- ▲ 쌍용컴퓨터 전무이사(현)
- ▲ 주요저서 : 綜合經營情報시스템/
매니지먼트 컴퓨터 시스템/
情報化實戰現場

능가가 필요한 것인지 정보화사회의 불가피성만을 부르짖을 때는 아니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공업화시대를 건설할 때 어떻게 하였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들에게 의식개혁 교육과 모터의 활용 기술인 공업기술교육 및 훈련을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했고 투자를 했다. 다음으로 전력, 전화, 항만, 공항,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부문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했다.

그리고 공산품의 생산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요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인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란 차원에서 계획경제개발이란 요법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되기는 했으나 일단 우리는 공업화에 진입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정보화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과거 공업화 과정에서 사용했던 시책들을 참고해서 정보화 과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문과 시행착오를 일으킨 시책을 버리고 효용이 있는 방법은 수용해야 한다.

정보시스템화로의 의식개혁

국민들을 공업화사회에서 굳어진 의식과 패턴에서 탈피시켜야 한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화사회의 개념을 불어넣어주어야 한다. 이들에게 정보시스템으로의 의식개혁 교육을 하는데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해야한다. 또한 「컴퓨터 문맹」을 퇴치시키는데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음성통신만으로 가능했던 공업화사회에서와는 달리 정보화사회에서는 음성통신 이외에 데이터와 영상이 디지털(Digital) 방식으로 대량으로 유통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품질과 초고속도가 보장되는 통신망이 계속 확충되어야 한다. 공업화사회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각종 법령, 제도 그리고 관행들이 정보화사회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장이 찍혀야 효력이 발생하는 공문, 국민의 편의보다 행정효율에 우선하여 만든 서식 및 제도 그리고 절차, 물자와 서비스구매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구매절차와 예산회계제도 등을 서류가 없이도 국민편의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와 제도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제도와 예산회계제도로 개선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와같은 것들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사회 간접부문으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정책과 제도적인 장치로서 먼저 정보시스

템의 수요창출 노력이다. VTR만 사주고 테입 구입비 지원 없이 「춘향전」을 보게 해달라는 식의 전산화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만들어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민간 회사들이 존립할 수 있도록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급측면의 제도적장치로서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보호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소프트웨어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적정하게 보상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이 측면은 다행히 제케도를 들어선 것이라 하겠다.

정보유통촉진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필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이 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고,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문맹률도 0%로 떨어졌다고 즉시 정보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장시설이 완성되고 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하드라도 공장에 원료가 투입되어 제품으로 만들어진 다음 고속도로를 타고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 공업화사회가 완성되는 것과 같이 정보의 원료인 데이터가 정보센터에 들어가 정보로 가공된 다음 통신망을 타고 사용자에게 전달될 때 정보화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정보의 「原料」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이의 유통이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다. 즉, 言論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반면에 단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되어야 한다. 言論의 자유개방과 사생활권의 보호라는 양면성이 다같이 보장되는 정보유통촉진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시행중인 정보의 청구권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등이 그 예이다. 운전자별 사건기록 정보를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산정을 목적으로 적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청구하면 치안본부는 즉각 이에 응해야 하고, 한국감정원이 많은 비용을 들여 제작한 자산평가 정보는 비록 감독관청이라도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예의 제도적장치가 정보유통촉진법에 담겨져야 한다.

정보시스템으로의 의식개혁, 컴퓨터 문맹퇴치, 법령·제도·절차 등 정보시스템의 환경정비, 정보시스템 수요창출, 정보유통촉진 및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정보화사회가 앞당겨질 수 있다 하겠다. ■